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는 자)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자기정체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항상, **내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생존의 위기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우리는 놀라운 정체성(identity)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구원받은 자의 몇가지 정체성을 파악 해나가고 있습니다.

I. 첫 번째 정체성은, 지난주의 메시지, <우리는 죽은자> 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느낌도 없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그런 죽은 사람으로 여겨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죽었다는 영적인 사실에 기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제 죽었는가? 객관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실이며, 주관적으로는 내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한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으니, 내가 죽은 것이며 그 순간,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 죄의 형벌 예수님이 대신 받으셔서 죽었으니, 내가 결과적으로는 내가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독교 변증(辨證)이자 우리를 새롭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의 법(法)에서 봅시다. 죽은자(사자)는 모든 현행법의 체계에서는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위기에 당하면, 자살을 선택하는 것을 봅니다. 사자(死者)는 모든 법적인 제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자는 모든 형사처벌(刑事處罰)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역사에 보면, 사자의 무덤을 파헤치는 형벌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오늘날은 그렇게 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죽은자에게는 기소나 형사처벌에서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죽었다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것이 법적으로 영적으로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 죽은 자나 다름이 없으며, 마귀사탄은 더 이상 우리에게 죄문제로 위협을 하거나 정죄, 두려운 형벌로 다가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대단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일단 죽음이 오면 인간관계는 다 끊어집니다. 법적관계나 생존관계도 다 중단이 됩니다. 법관도 죽은 자에게는 형을 언도하지 못합니다. 빚쟁이도 채무자가 죽어버리면 손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조차 있습니다. “사탄도 시체는 좋아하지 않는다.”(옥한흠 로마서강해 2. P.17) “마귀도 죽은 자와는 상관하지 않는다”(곽선희 상권 p 249)

혹자는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罪)에 대해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분명 우리 안에는 죄가 살아있다는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울사도의 메시지의 포인트는, 그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법적(法的)으로 죽은 자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나의 감정이나 느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靈的)인 법칙(法則)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며, 능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미국은 **Veterans**(퇴역군인)들에게 주는 혜택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19년 6개월 이상복무자에게 주는 연금(年金)도 있고, 퇴역군인은 (**VA** 건강 보험을 통해), 보험료 없이, 군병원을 무상(無償)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베테랑과 그 가족은, 전국 어느 공립대학에 진학하더라도, 주립대학에 준하는 학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놀이동산, 영화관, 대중교통, 음식점, **home depot, lowe's** 등 많은 곳에서 재향군인증(베테랑 카드)을 제시하면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비행기에 탑승할 때도 우선권이 있으며 <당신의 복무에 감사한다>**thank for your service** 라는 말을 듣습니다.

왜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인가요? 그들은 한번 죽었던 존재들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군대는 전쟁터에 나가서 적과 싸워야 하는 의무가 기본입니다. 때에 따라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들이 전장에 나갈때는 항상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6.25 전쟁당시 (한국전쟁) 참전한 미국군은, **1,789,000명**이었습니다. 그중 전사자의 수는 **36,940명**이었습니다. 전사자(戰死者)비율(比率)로 따져보면 **2.06%** 였습니다.

나라는 이들을 기립니다. 이들의 희생으로 나라는 목적인 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비율이 비록 **2%**에 불과하지만, 나라는 전사자 뿐 아니라, 이 일에 헌신한 동료장병들과 그들의 가족에게도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꺼이 받아드리며 존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군대장관되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가,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제공이 되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혜택을 입게 된 것이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될까요?

아담이 인류를 대표하듯이 예수님이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아담이래로 온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새로운 세상을 여시었으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함께 달려 죽음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을 통해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시간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죄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II.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살아난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정체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생명(生命)의 정체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은, **소극적(消極的)**이고, 부정적(否定的)인 정체성입니다.

마귀사탄에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으니, 나는 죄 문제에 대해선 이미 댓가를 치루고 죽은 사람인 것이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주장은, 일종의 방어적(防禦)입장인 셈입니다. 물론 사실(史實)에 기반(基盤)하여서 주장(主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에 근거(根據)한 당당한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수세적(守勢的)이고, 소극적(消極的)이고, 방어적(防禦的)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복음에는 그 반대의 **역동성(逆動性)**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죽음만 있는게 아니라, **부활과 새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앞에 사는 자>가 됩니다.

전에는 <죄(罪)에 대해 살았었으나, 하나님께는 죽었던> 우리들인데,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죄(罪)에 대해선 죽고, 하나님께는 산자가 된 것>입니다.

정반대(正反對)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게 된 축복(祝福)입니다.

이것이 4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기에, 장사(葬事)의 진정한 목적이 드러납니다. 6-7절을 봅시다.

6. 우리가 일어나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 구절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의 목표(目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죽음과 장사의 메카니즘(구조:mechanism)이 있습니다.

1) 죄에게 다시는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6) ‘죄의 종’이라는 말일 겁니다.

2)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하려고(7)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일사부재리원칙(一事不再理原則)이라는 법적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판결로써 확정된 범죄는 다시 처벌할 수 없고, 본인의 이익을 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행위를 재심사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으로, 개인의 인권옹호와 법적 안정의 유지를 위해 수립된 형사법상 원칙입니다. 복음이 딱 그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안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사면(赦免)이 된다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목적은 사면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짓지않고 종노릇하지 않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 특별한 방법을. 메카니즘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이것이 8절에 잘 설명이 됩니다. 8-11절을 읽어봅시다.

8.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믿노라.

10.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11.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구절들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죽음과 삶의 대조(對照)>입니다.

10.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 구절에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인류의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라는 말에 주목(注目)해야 합니다.

‘단번에’(에파팔스)란 표현은, 구약의 속죄 제사 규례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 일 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렸으며, 백성들은 죄를 범할 때마다 희생 제물을 가져왔으니, 그 제사는 반복적(反復的)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되신 그리스도는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들이 반복적(反復的)으로 드려왔던 그 제사 대신, 자기 몸을 제물로 바쳐 ‘**오직 한번만**’(once for all, RSV) 드림으로써,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셨다(히7:27/9:12 /10:10).

*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히7:27)

*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9:12) *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0:10)

이것이 우리가 구약처럼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도 되시고 제물도 되시는 유일한 연합의 상징입니다. 그분만 그리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영원이라는 단어에 주목해보자. <단번에>라는 말에 <영원한 속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 이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확신케 하는 말씀이 없을 정도입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나>를 인정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믿을 때, 나는 마귀사탄에게 세상에 대하여 나는 죄에 대해 죽었다고 선언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영원한 것 하나가 더 있다. 그것은 나의 주님이신 예수께서 나와 함께 부활하셨다는 사실이다. 주님의 부활은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장이다.

이것이 4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부활한자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산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두 번째 자아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앞에 산자입니다.

예수님의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에게,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닙니다. 산 자로 인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로 죽은 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살아난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 형벌을 치른자로서 죄에 대해서는 죽었으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가 된 것입니다. 죄의 값이 치루어 졌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살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산사태나 전쟁등으로 인해 사람들이 매몰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 인명구조팀들이 사용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일종의 <생존자감지기구>인데 **UWB(초광대역)** 레이더가 있습니다. 이 장비는 잔해(殘骸)속에 있는 사람의 미세한 움직임, 가슴의 심장의 오르내림과 호흡을 감지합니다. 또는 야간투시경같은 열화상장비로도 온도로 찾아내기도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가 있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사도요한은 요한1서 5: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겐 아들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생존자감지기구로 보면, 우리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반짝이게 되고 그것이 우리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이며 또한 산 자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며,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입니다.

내가 죽어있음은 죄에 대해 죽은 것이고 내가 살았음은 하나님에 대하여 산 것입니다. 이전에 나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정욕을 위해 죄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죽고 내앞엔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됩니다. 전에는 죄가 나의 삶의 특징이었으나 이제 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11.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NIV : In the same way, **count** yourselves **dead to sin** but **alive to God** in Christ Jesus.

KJV : Likewise **reckon** ye also yourselves to be **dead** indeed **unto sin**, but **alive unto God**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본절에 대해 스토티(John Stott)는 매우 논리적이면서 간략하게 설명했다. "만약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죄에 대한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이 하나님에 대해 살으심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살으심 안에서 그와 연합(聯合)되었다면, 우리 자신은 죄에 대하여는 죽었으며(**have deied**)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았다(**have risen**).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이 여겨야 한다."

저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나서 새로운 사람이 된 후에 길을 가다가 옛날에 함께 어울리던 거리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어거스틴이 못 본척하고 지나가려고 하자, 그 여인이 쫓아오며 "저예요 저 몰라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거스틴이 대답하기를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닌 말이야"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십자가를 깨달은 날부터, 성령의 침례를 받고 물침례로 그것을 고백한 순간부터 죄에 대하여 자신은 죽었다는 진리를 받아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실상이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8)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 한 번만 죽으신 것이요, 그가 지금 살아 계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시는 것입니다.(10)"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심판이 있으니라 (히9:27)" 인간은 어차피 한번 죽을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한번 십자가에서 죽으면,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그게 잘 안되는가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기 한 송이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은 산꽃입니까? 죽은 꽃입니까? 곧 죽을 꽃 아니 이미 죽은 꽃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당신에게 합니다. 당신은 산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어차피 죽을 자라면 죽은 자로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새 생명이 역사할 것입니다.

다르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입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비록 지금 육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나 영생을 얻은 자요 영생을 얻은 자이니 우리는 죽은 자입니까 산자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아인식의 두 번째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것이 침례에서는 물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을 때 목사가 일으키지 않으면 아무도 침

례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곧 장례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물에서 나올 때는 들어갈 때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영접하기 이전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값이 치러졌으며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그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되어서 더 이상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반응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나 생명이 됩니다. 새생명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사랑과 양육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맺음 : 성화의 입문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싸움은 자아인식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만 산자로 여기는 자세가 이 싸움을 승리하게 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과 성령침례받는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마음 약해지게 됩니다. 사도는 그래서 이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삶의 목표로 설정합니다.

빌립보서3:10-14절이 이것을 잘 표현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또 이미 목표점에 이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곧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 우리 자신을 바로 봅시다. 자신을 죽은 자로 인정하십시오, 죄와 율법에 대해 죽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만 반응하는 산자로서 그의 생명력을 가지고 그의 승리를 내 삶에 누리십시오. 우리가 함께 다 죄에 대해 죽은 자들이 되었고 함께 부활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 성화를 이루어갑시다. 함께 성장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기도합니다.

* 기도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다면 하나님께만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만 살아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기 원합니다.

때론 죽은자로 때론 산자로 복음을 경험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